

〈제 675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신세계

◆ 올해 첫 '와인창고' 개방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본관 지하1층 와인 하우스&행사장에서 올해 첫 대규모 '와인창고방출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창고대전에서는 국가별 인기 프리미엄 와인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추천 와인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였다.

광주은행

◆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1일 본점에서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와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출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오는 5월부터 전남지역 각 지자체별로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이 출시됨에 따라 광주은행은 '지역 상품권 chak' 앱(APP)을 통해 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서비스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 시·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이 증대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스코

◆ 조선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다스코 한상원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이후 경영대학원 MBA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한 대표이사는 다스코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 경영인으로서 도로 안전 시설물 제조업부터 금속 구조물 제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개발을 통해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 2022 삼성 스마트스쿨 운영



삼성전자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한 초등학교 8개, 특수학교 2개 등 총 10개 학교에 '2022 삼성 스마트스쿨'을 운영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삼성 스마트스쿨은 도서산간 등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삼성전자의 IT 기기와 학습 솔루션·콘텐츠,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해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는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전국 98개 학교, 193개 교실에 스마트스쿨을 구축했다.

영진종합건설

◆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장 취임



영진종합건설 박승현 회장이 대동문화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박승현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27년 차를 맞은 대동문화재단에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더불어 지금껏 대동문화재단을 창립해 이끌어준 조상열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에게 힘찬 박수 보낸다”면서 “이임하시는 허정 이사장께서는 대동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집중점검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본부장 김무영)는 지난 23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22개조(44명)의 공단 점검반은 광주·전남에 소재한 소규모 건설현장 66개소를 불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점검결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은 즉시 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하고, 그 외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은 자체 개선 및 공단 확인을 통해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546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김경준(CEO스코어 대표) 주제: DX시대의 디지털 피보팅 전략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3월25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를 초청 <DX시대의 디지털 피보팅 전략>이란 주제로 제1546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은 1998년에 2005년경이 되면 인터넷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기껏해야 팩시밀리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년 전 쿠팡은 성장하고 있었고 미국 아마존에 대한 기사는 매일같이 나왔지만, 당시 국내 리테일 산업을 주도했던 회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대세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개편의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Digital Transformation)은 과거 하나의 개체가 디지털화한다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피보팅(Pivoting)'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피보팅이란 외부 환경에 따라 기존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원재료를 들어 생산 과정을 거친 후 물건과 서비스를 내놨지만, 현재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를 수집해 일정한 알고리즘을 거쳐 비(非)물리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돌덩이처럼 무거운 저가치 유산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아날로그 사업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디지털 기술이라는 도구와 접목하는 '디지털 피보팅'은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소위 전형적인 아날로그 산업으로 치부했던 음식배달, 식품유통, 정육점, 세탁소, 반찬가게, 전복양식 등이 디지털과 접목되어 재탄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아날로그 방식 사업이 기본이다. 디지털 전환의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혼돈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다. 위기는 크게 보이고 기회는 작게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날로그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피보팅에 성공하는 경우에 성과와 반향은 더욱 클 것이다.



II. 광주경충 소식

〈중장년센터 제9,1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23,24일 이틀에 걸쳐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9,1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60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광주시 일·생활균형 경영실천 비전 선포식〉



본회 운영현 상임부회장은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주시 일·생활균형 경영실천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본회 광주경충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일·생활균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20여

기업의 대표자와 근로자가 10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일·생활균형 실천' 과 '더 좋은 일터 실현'을 위해 △남녀 모두의 일할 권리 확보와 고용안전 △적절한 근로시간과 일과 생활, 삶의 균형 △일터의 환경·안전·건강·복지 △개인의 성장 지원 및 기업 발전 △노사상생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추구 등 6개 항목의 핵심목표를 설정, 적극 추진키로 선언했다.

사무국 일지(3.21 ~ 3.25)

3.21 (월)	● 청년센터 더 숲 센터장 사무국 내방	3.24 (목)	● 서구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의 ● 중장년센터 제1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3.22 (화)	● 안전보건공단 심사회의		
3.23 (수)	● 중장년센터 제9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3.25 (금)	● 제1546회 금요조찬포럼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교육위원회의 ● 광주시 일·생활균형 경영실천 비전 선포식

1. 노사 동향

■ 대통령 당선인은 경총 등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 대통령 당선인은 3. 21 경총 등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탈바꿈,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 ▲규제개혁, ▲자유시장경제 체제 등을 강조

- 당선인은 규제개혁과 경제계 의견 청취를 위한 ‘핫라인’ 개설을 약속

○ 손경식 경총 회장을 포함한 경제6단체장은 규제개혁,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등을 요청

-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

- 또한, “일자리 모습 다양화와 근로자 니즈의 변화 등 시대 요구에 맞도록 노동 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분규현장의 과감한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당부

-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

※ 경제6단체장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경총은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 경총은 3. 24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최근 노사관계 현안과 ‘신(新)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노동시장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
- 경총은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동개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신정부에 건의할 계획
 - 경총은 노동개혁 방안과 관련해 ①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 ②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③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강조
- 한편,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노사관계선진화 위원회를 발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정책 제언을 강화해 나갈 계획

2. 판례 동향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수료로 지급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2021다302155 등 병합).

1. 사실관계

- 피고(이하 'A사')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판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A사는 2009.1.1 B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원고들(이하 '이 사건 기사들')이 소속된 사업부문을 양수했고, 양수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이 사건 기사들(128명)은 A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해, 생활가전제품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 그러던 중 이 사건 기사들은 A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1심, 2심 유지 / 심리불속행 기각).

2. 판결요지

- 법원은 이 사건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A사는 근로자로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판단함.
- (A사의 업무지시) 이 사건 기사들은 A사가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배정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배정받았고, 배정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음.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출근의무) 이 사건 기사들은 아침 조회를 위해 매일 각 소속지점으로 출근해야 했고, 평일은 9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업무배정이 이루어 졌음. 또한, 배정받은 업무가 조기에 끝나더라도 이후 배정될지 모르는 다른 업무를 위해 업무 차량 등에서 대기하거나 부대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고객 서비스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는 사실상 퇴근할 수 없었음.
 - (지휘·감독) A사는 제품의 설치·수리방법 및 고객응대 매뉴얼 등을 작성해 교육을 진행했고, 이 사건 기사들을 상대로 필기·실기평가, 고객에 대한 만족도 전화, 지점장·센터장의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었음.
 - (지급받은 수수료) 이 사건 기사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난이도, 건수 및 업무 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됨.
 - (전속성, 계속성, 종속성) 이 사건 근로자들은 A사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A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음. 또한, A사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음.
- 법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유 등으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하도록 함.
- (퇴직금) 법원은 A사가 B사를 인수합병한 2009.1.1이 아닌 최초로 B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을 근속기간의 기산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그 근거로, ① 이 사건 기사들은 영업양수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② 소속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입사 및 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A사와 새롭게 작성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B사와 작성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음.
 - (주휴수당) 법원은 이 사건 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Ⅲ. 노사 및 판례동향

월 주휴수당 산정 방법

$$= \textcircled{㉠} \text{ 해당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 \times \textcircled{㉡} \text{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times \textcircled{㉢} \text{ 각 월별 만근한 주 수}$$

-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앞서, ㉠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법원은 이 사건 기사들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수료를 받았기에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법령명	조항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령명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령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수수료의 통상임금 여부와 관련해, ①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실적·성과를 기초로 그 대가를 산정하는데 실적이나 성과는 사전확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급 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도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인정될 수 없어 매우 부당하며, ② 도급 금액 산정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사전확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봄.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따라서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한 ‘평일 7시 30분부터 20시까지, 토요일 8시부터 18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 8시간에 ㉡ 주 6일 출근한 주의 수를 곱해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함.
- (연차휴가수당) 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일수 x 8시간)을 곱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미지급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판단함.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특수형태종사자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통상임금으로 봄. 특히 위임계약서에서 수수료의 산정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사전확정성’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본 점이 주목할만 함.
- 또한, 대법원이 특수형태종사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인정한 만큼, 현재 하급심에서 심리 중인 다른 사건에도 미칠 영향이 주목됨.
 - ※ 다른 하급심에서도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휴수당을 청구해 사건 진행 중에 있음.